

# 인사

## 사랑하는 문예동무용부 맹원동무들을 비롯한 무용경연대회 참가자 여러분!

2007년11월에 도쿄조선문화회관에서 제5차무용경연대회를 가진 이후 효고, 오사카, 나고야를 거쳐 이곳 도쿄에서 8년만에 제9차조선무용경연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조선무용을 사랑하고 즐기는 재일조선무용가들의 축제라고도 말할수 있는 문예동중앙무용부주최 조선무용경연대회는 그때마다 경험을 쌓아가면서 면모를 일신하여왔습니다.

제6차경연대회로부터 각 지방에 있는 문예동소속연구소를 비롯한 여러 연구소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소학생부문을 내왔으며 제8차부터는 조선무용연구소를, 이번 경연대회부터는 지역에 있는 일반무용소조도 함께 경연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민족교육의 대화원속에서 련마해온 조선무용을 계속 잊지 않고 꽃피우고있는 우리 맹원들과 무용애호가들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귀중히 여길줄 아는 민족성고수의 선구자들입니다.

올해는 총련결성60돐과 조국해방70돐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자기 나라도 아닌 이역땅에서 1세들이 조국을 만들고 지켜오신것처럼 우리 2세, 3세, 4세들은 계속 민족성이 차넘치는 화목한 동포동네를 꾸리는 운동에서 앞장서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기술기량을 부단히 높여 조선무용을 통해 동포들은 물론 일본사람들과 남조선인민들에게 우리의 우수한 문화전통을 널리 알려나가야 합니다.

오늘의 경연대회에서 출연자들이 이제까지의 연습성과와 자기들의 있는 힘을 백방으로 발휘하여 좋은 성과를 달성하여주시기를 마음속으로부터 바라며 힘과 용기를 얻을수 있는 좋은 무대가 되기를 기대하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경연대회를 마련하기위하여 아득바득 준비하여온 각지역 무용부장을 비롯한 역원동무들, 맹원동무들과 연구소소장들, 지역소조지도원들과 책임자들 학생들과 학부모 여러분 특히는 개최지인 도쿄도본부관하일군들과 동포들에게 문예동중앙무용부를 대표하여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문예동중앙 무용부장 임수향